우암학원 창학 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동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572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7월 13일 2025년 9월 4일 목요일

전화 한 통으로 '생활-의료-건강' 원스톱 돌봄 서비스

광주다움 통합돌봄 'K복지' 브랜드 되다

나이·소득·장애 무관하게 운영
'돌봄콜' 신청하면 촘촘한 서비스
2년 간 지방비 209억원 투입
지난해 8595명 1만2889건 제공
한국 표준 넘어 해외에서도 주목

민선 8기 광주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대한민국 복지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가 자체 개발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복지서비스 체계로, 나이·소득·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전화 한 통으로 복지통합 서비스를 요청하고, 위기가구는 공무원이 먼저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보편·발굴·통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광주형 복지서비스 체계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도화했고,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광주시는 통합돌봄을 바탕으로 2023년 8752명에게 1만8445건, 지난해에는 8595명에게 1만2889건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동사무소 복지담당과 간호직 공무원이 직접 대상자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는 5만6591건, 의무방문은 2만2998건을 헤아린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취약계층이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먼저 찾아가는 체계와 의료 연계 확대로 돌봄의 완결성을 높인 게 두드러진 특징이다.

적극적인 취약계층 발굴과 보살핌 덕분에 같은 기간 전국 광역시에서 고독사가 6.5% 늘었지만 광주는 4.5% 줄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혁신성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2023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에 이어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통령상을 받았고, 지난 8월에는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한 '2025 한국정책대상' 대상을 차지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광주를 방문해 "광주의 경험을 반영해 내년 3월부터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사례가 됐다.

광주시는 7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 국제인권회의에서 통합돌봄을 모범사례로 발표했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과 정책교류를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소득과 연령에 구애받지 않는 '찾아가는 돌봄'이 유엔 사회권 규약 가치와 맞닿은 지방정부의 실천으로 평가받았다.

'광주 모델'의 핵심동력은 전달체계·기술·재정의 삼박자다.

시와 5개 자치구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동별 케어매니저를 배치했으며, 방문의료지원센터 10곳과 치과위생·물리·작업치료 전문인력까지 묶어 민관 협업망을 구축했다.

이들이 현장에서 입력한 돌봄평가가 즉시 공유되고, 1인당 지원액과 서비스 결과가 실시간으로 추적된다. 이 체계는 중복과 누락을 막고 '발굴-연계-관리'를 일상 업무로 만든다는 점에서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잇따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자체 개발한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대상자의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관리하며, AI 안부확인과 ICT 안전체크 등 첨단 스마트 돌봄을 추가했다.

핵심은 동 케어매니저의 현장 사정과 시·구 전담부서, 민간 제공기관을 하나의 전산으로 묶은 통합개편이다. 전산 시스템으로 동(洞) 현장부터 민간 제공기관까지 한 번에 묶고, 부족했던 틈새 13종 서비스를 새로 열어 '누구나 한 번 신청, 끝까지 연계'라는 통합을 조성한 것이다.

시민은 '돌봄콜' 한통으로 신청하면,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는 비용을 전액 지원받으며 1인당 연 15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일시재가와 식사, 병원동행, 대청소·방역, AI안부확인과 ICT 안전센서, 케어안심주택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구조다.

이를 위해 2년간 지방비 209억원을 투입했고 기준중위소득 90% 이하에게는 연 150만원 한도 내 전액 지원한다.

기존 복지인프라의 틈새를 메우는 26종 신설 서비스도 촘촘하다. 가사지원, 방문목욕, 식사지원, 병원동행, 대청소, 방역·방충, 주거안전, 방문간호, 방문맞춤운동, 방문구강교육, AI 안부전화, ICT 안전체크, 케어안심주택 등 기존 제도 밖에 있던 필요를 묶어 일상 회복의 연속성을 높였다. "빠듯한 재정에도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사각지대를 메웠다"는 설명은 광주다움 복지의 지향점을 설명해준다.

시민 체감도도 높아져 정책 성과분석 표본조사에서 삶의 만족도는 9.2점 상승했고 우울감은 9.8점 감소했으며 사회신뢰지수는 16.6점 올랐다. 전국 지차체의 벤치마킹과 정책연구 문의도 2024년 한 해 39건, 2025년 현재까지 20여 건으로 이어졌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에서 시작한 통합돌봄이 이제 전국 곳곳에 자리잡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된 것"이라면서 "광주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더 많은 이웃이 끊김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다듬고, 더 두터운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3일 오후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막을 앞두고 열린 '활의 나라' 오프닝 쇼가 열린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33호 '고싸움놀이'가 펼쳐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활의 나라·양궁 축제' 뜨거운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 개막
전야제 선수 등 2000여명 참석

광주시 동구 금남로가 전 세계 활의 대축제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3일 광주 2025 현대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및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의 공식 개막을 알리는 전야제 '활의 나라'가 대장정의 서막을 열었다.

이날 광주 금남로는 거대한 무대로 꾸며져 국내외 선수단과 시민 2000여명이 어우러진 축제의 장이 됐다. 행사의 서막은 국가무형문화유산 제33호 광주칠석 고싸움놀이가 열었다. 이어 광주시립창극단 공연과 K-POP 댄스, 태권도 시범 등이 펼쳐져 금남로를 뜨겁게 달궜다.

밤하늘을 수놓은 비둘기 풍선 퍼포먼스에 이어 가수 알리와 노라조 등이 출연한 축하 공연이 대미를 장식했다. 전통문화와 현대 K-컬처가 어우러진 무대에 외국 선수단도 흥겨운 반응을 보였다.

시민과 70여 개국 선수단은 하나 된 마음으로 개막 축제를 즐겼다. 관객들은 신나는 농악 장단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고 휴대전화 불빛을 흔들며 광주의 밤을 만끽했다.

이번 대회에는 76개국 731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1985년 서울, 2009년 울산에 이어 3번째이며, 세계선수권과 장애인선수권을 한 도시에서 함께 개최하는 것은 국내 처음이다.

전세계 500명의 궁사와 코치진 등 관계자 190명이 리커브와 컴파운드 종목(남녀 개인전·남녀 단체전·혼성 단체전) 10개의 금메달을 놓고 8일간 열전을 치른다.

한국 선수들이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리커브는 8~12일,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컴파운드는 공식 연습을 포함해 5~8일 진행된다.

각 종목 결승전은 5·18민주광장에서, 결승전을 제외한 토너먼트 경기와 예선 라운드는 광주 국제양궁장에서 열린다.

대회 조직위원회 이연 사무처장은 "국내 최초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세계선수권을 함께 여는 역사적인 자리인 만큼 참가 선수단 모두가 대회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300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서포터즈가 대회 곳곳에서 지원하며 성공 개최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도 연이어 개최해 세계 양궁인들의 축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